

수 학 보 고 서

소 속	디지털미디어학부 (대학(학부)/전공)	
파 견 국 가	미국	
파 견 대 학	나이아가라 대학교	
파 견 기 간	시작	2025.01 (년/월)
	종료	2025.05 (년/월)

준비 과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교환학생은 대학생 중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빠른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에, 3학년 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턴을 하며 오히려 해외경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결과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토익에 집중하며 교환학생을 위한 어학 성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영어권 국가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후기가 많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는 나이아가라 대학교(Niagara University)에 끌려, 1지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국제교류처에는 서약서, 과목이수계획서, 항공권 및 보험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파견교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류(어학성적점수,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요약서, 여권사본, 가족 및 개인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 건강검진과 F1비자 발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캐리어는 28인치 2개와 백팩을 들고 갔는데, 캐리어는 가서 버릴 만한 것으로 들고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다 새 거로 들고가서 후회했습니다.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개강 전날 버팔로 공항에 도착했으며, 픽업은 학교 측에서 무료로 제공해주었습니다. 저는 봄학기 파견이라 따로 오리엔테이션이 없었는데, 이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 가을학기가 신입생이 입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걸쳐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봄학기는 한국 학기로 치면 2학기에 해당되어

<p>학기 중간에 합류하는 셈이기 때문에, 따로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p> <p>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계획 중이시라면 무조건 가을학기를 추천 드립니다!!</p>
<p>수업 & 학교 활동</p>
<p>저는 한국에서 들어볼 수 없는 수업을 위주로 선택해 수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부담 가는 수업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학점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고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 및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빙고나잇, 카지노나잇, 가라오케나잇, 버팔로 라크로스 경기, 토론토 야구 경기 등에 참여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기숙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onoghue: 저는 1인실인 O'd로 배정받았습니다. 화장실이 진짜 넓고 깔끔합니다. 고학년이 주로 머무르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습니다. - Lynch: 1인실이나 개인적으로 O'd가 위치나 시설면에서 더 나은 거 같습니다. - Seton: 헬스장이랑 가까운 것이 장점이나 주로 저학년이 살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 O'Shea: 운동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거 같았고 Seton처럼 저학년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 Clet: 다이닝홀이랑 가까운 것이 장점이나 시설이 조금 낡았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Apartment: 쉐어하우스 느낌인데 가장 비싸고 한국 교환학생은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학교 내 편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ning Commons 저는 무제한 밀플랜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피자가 정말 맛있고 서브웨이처럼 저만의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서 에그마요도 정말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메뉴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아 질릴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잘하면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과일, 쿠키, 케이크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시도때도 없이 갔습니다. 대신 살이 정말 많이 찹니다.. - Gallagher Center 1층에는 라운지가 있고 푸드코트, 편의점, 팀홀튼 등이 있어 간단하게 식사나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갤리골드 100달러(학비포함)로 이곳에서 간식을 많이 사먹었습니다.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으며, 남자 농구경기를 보러 많이 갔습니다. - Dwyer Arena (드와이어 아레나) NHL 규격 아이스링크, 스타벅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자주 갔습니다. 이곳에서 아이스링크도 타고 DJ를 불러 학교 행사 및 공연을 했습니다. - Kiernan Recreation Center

	<p>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어 운동하기 좋았고 천국의 계단이랑 수영하러 자주 갔던 거 같습니다.</p> <p>-도서관 시험기간에 자주 갔고 스터디룸도 있어서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공부하기 좋습니다.</p>
<p>주변 환경</p>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나이아가라 폭포, 버팔로, 토론토와 가까워서 수업이 없는 주말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 저는 금공강이었기 때문에 매주 금, 토, 일마다 버팔로 클럽, 루이스턴 펍, 나이agara폴스 캐나다사이드 펍, 토론토 여행, 나이아가라 폭포 근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뉴욕주 루이스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암트랙이나 비행기를 타고 주변 나라를 여행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버팔로까지 직항이 없어 최소 한 번은 경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개강 전에 먼저 들어가 일주일 간 뉴욕시티 여행을 했습니다. 스프링브레이크 기간에는 서부여행(샌프란, LA,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투어)을 했으며 이스터 때는 캐나다여행(토론토, 몬트리올, 퀘벡)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동아리 HTA에서 주관하는 콜로라도 덴버 트립에 참여했으며, 학기 중에 시카고, 종강 후에는 뉴욕시티, 보스턴, 밴쿠버 여행을 했습니다.</p>
<p>비용</p>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명지대학교 등록금 납부했습니다.</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기숙사 1인실 기준 한화 약 1410만원 지불했습니다. 하필 환율이 1400원 대를 훌쩍 넘는 시기여서 정말 비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 (기숙사, 보험, 무제한 밀플랜, 교재비, 교환학생 비용 등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다시 돌아간다면 교재비는 OPTION OUT 할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책을 잘 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p>
<p>생활비</p>	
<p>정확히는 모르나 등록금, 기숙사비용 이외에 왕복비행기, 비자발급비, 생활비 및 여행비 등의 비용을 1000만원 잡고 갔습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자기 쓰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김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p>	

서 여행에 돈을 많이 썼던 거 같습니다.
뉴욕 120만원, 서부 300만원, 덴버트립 50만원, 시카고 50만원, 이스터 여행 80만원, 종강 후 100만원 정도 잡고 사용한 거 같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외국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보다도 **외향적인 태도**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릴 만큼 즐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가을학기에 가서 1년 파견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은 단순히 공부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은 대학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